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14일 3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 N행시 공모전'에 참가한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청렴 N행시로 공직자 본분 되새겨요”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공모전 개최...투명한 조직 문화 확산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14일 지사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N행시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스스로 청렴 슬로건을 고안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되새기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대내외에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방식은 이색적이었다. 직원들은 '청렴'과 관련된 제시어를 선택해 재치 있는 N행시를 짓고, 이를 미니 족자에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써 내려갔다. 특히 자신의 청렴 성향을 파악해 보는 '청렴 CBTI(청렴감수성진단)' 테스트가 병행돼 젊은 MZ세대 직원들로부터 뜨

거운 호응을 얻었다.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작은 지사 ARS 전화 안내 멘트로 활용돼 고객들에게 공사의 청렴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주지사는 이번 결과물들을 지사 곳곳에 전시하고 홍보 자료로 활용해 청렴 문화를 지역사회로 전파할 방침이다.

박기철 지사장은 “직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가슴 깊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농업인과 고객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